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6월 7일(주일) 제1298호



2019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

6.25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회 위한 '더 특별한 마리아들의 기도행전'
6월 24~25일 각 캠퍼스 본당 ... 안내데스크에서 참가자 접수

6.25전쟁 70주년 기념하는 올해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회, 가정과 일터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더 특별한 마리아들의 기도행전이 펼쳐진다.

2020 마리아행전이 '소망의 힘'을 주제로 막 오른다. 6월 24일(수)부터 2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가

지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올해 마리아행전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장소를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으로 결정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실시간으로 집회 영상을 송출하

면 각 캠퍼스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방식이다. 각 캠퍼스 본당에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해당 캠퍼스 성도들만 출입할 수 있다.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에서는 24일(수)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나의 영혼아 잠잠히', 25일(목) 이재훈 담임목사 '하나님만 바라라', 26

일(금)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나의 참소망'을 주제로 강의한다.

2020 마리아행전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밝은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6월 6일과 7일 예배당 주일예배와 10일 수요일여성예배 이후 각 캠퍼스에서만 받는다. 온라인 접수, 전화 접수, 목회지원실 접수는 받지 않는다.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

되는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이다. 선착순 마감한다.

캠퍼스별 수용인원은 서빙고 535명, 양재 730명, 부천 205명, 수원 200명, 인천 80명, 대전 160명, 남양주 102명, 강동 130명, 평택 88명, 양지 200명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667(3201)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 24,007명 참여

6월 29일 오후 7시 30분 '토론의 장' 마련 예정

지난 5월 11일 주간과 18일 주간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실시한 순예배 간담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온누리교회 성도 24,007명(1차 14,862명, 2차 9,145명)이 참여했다.

캠퍼스별로는 서빙고 1,989명(33.7%), 양재 1,906명(38%), 부천 292명(58%) 등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50대(40대 1차 30.8%, 2차 31.7%, 50대 1차 31.3%, 2차 36.5%)가 가

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온누리미래위원회는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 분석과 더불어 성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9일(월) 오후 7시 30분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함께 토론하는 장(場)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을 활용한 방식(웨비나)이나 안전거리를 확보한 오프라인 세미나 등이 고려되고 있다.

6월 비전헌금

NGO 더멋진세상 후원

6월 13일, 14일 봉헌하는 비전헌금은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선교지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섬기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6월 13일, 14일에는 온라인으로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행사도 실시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구촌 24개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문의: 02-2271-2248

예배당 예배 예약 '전화'로도 할 수 있다

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등록교인 한정

이제는 전화로도 예배당 예배를 예약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예배당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전화로 예배당 예배 예약을 하고 참석하면 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로 전화하면 예배당 예배 예약을 도와준다. 등록교인만 예약할 수 있다. 전화 예배당 예약은 등록교인임을 확인하고, 직원 안내에 따라 참석하고 싶은 예배를 선택하면 된다.

교회에 와서는 야외에 설치된 임시행정실(임시데스크)로 가서 예약 확인을 하고 입장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02-3215-3220, 3263, 3661)

양재(02-570-7349, 7469, 7438),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코로나19의 역설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무엇 하나 이로울 것 없어 보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꼭 한번 돌아봐야 할 숙제를 안겨줬다. 인간의 발길이 끊기자 회복되는 지구를 목격하면서 환경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 서 소외된 이웃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역설이다. 본지에서는 ‘코로나19의 역설’을 주제로 코로나가 안겨준 숙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는 ‘환경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멈추자 지구는 역설적으로 봄날을 맞이했다.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환경을 괴롭혀 왔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구의 봄날 지키기’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던 4월 초 한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다. 매년 봄이면 가던 나들이를 멈추고, 계획했던 여행이 취소되고 있다. 휴일마다 붐비던 관광지마저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자 지구는 건강을 되찾고 있다. 동물들과 자연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봄날을 만끽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구의 봄날을 맞이한 주인공은 동물들이다.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된 브라질 해변에서는 올해에만 멸종위기 바다거북이 240여 마리가 탄생했다. 코로나19로 해변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모래에 묻혀 있던 알 속에서 새끼 바다거북이가 껍질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인도 뭍바이 인

근 새강에는 분홍빛 물결이 일렁였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줄어들자 홍학 15만 마리가 찾아와 장관을 만들었다. 인도 환경단체에 따르면 예년보다 최소 25%나 많은 홍학들이 이 지역을 찾아왔다고 한다. 인도에 내려진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인해 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수질오염이 개선되었고, 홍학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도심을 찾는 동물들도 늘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거리에는 퓨마가, 영국의 한 소펄가에는 야생 염소 떼가, 태국 중부 톰부리 도로에는 원숭이 무리가,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여우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구의 봄날을 만끽하는 주인공이 또 있다. 자연이다. 지구를 괴롭히던 오염물질들이 줄어들자 자연도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의 사례로 손꼽히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운하가 맑아졌다. 맑아진 물속에서는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작은 물

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는 광경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한 대기오염이 감소하면서 자연이 그동안 참아왔던 숨을 쉬고 있다. 30여 년 동안 짙은 스모그에 가려져 있던 히말라야 산봉우리가 그 자태를 드러냈다. 인도에 국가봉쇄령이 발동된 뒤 공장들과 사업장들이 문을 닫자 자연스럽게 대기질이 개선되면서 히말라야에서 100마일(160km) 이상 떨어진 인도 북부 지역에서도 히말라야의 눈 덮인 정상을 볼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환경 돌아보는 숙제도 안겼다

홀연히 봄날을 맞이한 지구를 보면서 ‘어쩌면 인간이 지구에게는 바이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지키고 보호하라고 허락하신 자연을 인간이 너무 이기적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동물과 자연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지구의 봄날은 안타깝게도 짧게 끝나버렸다. 봉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기오염이 다시 돌아왔다.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고, 인구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산화질소 농도가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쓰레기 배출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외출이 줄어들면서 가정에서 종이상자, 포장용기, 플라스틱 등의 수많은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일회용품 배출이 엄청나게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역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지구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의 아주 작은 행동을 실천하면서 지구의 봄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사역칼럼



강종도 집사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학팀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창 1:1), 창조되어진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셨던

것처럼 보아야 한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좋게 보신 자연을 좋게 보아야 한다. 좋게 보다는 청지기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섬기며,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직접적인 생명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두고 더 이상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에까지 이르는 실정이었다. 그만큼 지

구환경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문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연간 약 370억톤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쓰레기 소각장과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전 세계를 오염시켰다. 플라스틱은 해양생태를 교란시켰으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져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서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수많은 쓰레기들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 분리배출도 제대로 안 된 쓰레기들을 재처리하는 상당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생명과학팀’을 주축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환경캠페인을 추진했다. 그러나 교회 쓰레기 발생량을 70% 아래로 줄여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불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산화

환경문제는 직접적인 생명문제

탄소 배출량을 추정하는 국제 과학자들의 컨소시엄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 4월 초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일일 배출량이 17%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10% 이하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무의식중에 환경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달인 4월은 전례 없이 쾌청한 날을 맞이했다. 환경이 개선되자마자 우리는 걱정 없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숨이 편안해지고 생명의 소중함과 건강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 많아졌다.

반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팬데믹 상태로 인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또 다른 환경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다. 재활용이 안 되는 마스크도 새로운 환경문

제가 되어 찾아왔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핑계로 이 상황을 넘여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환경이 파괴되었다. 더 이상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명문제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일회용품 사용은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줄여갈 수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재활용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한다. 장바구니를 사용함으로써 과도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환경문제를 실천신앙의 한 부분으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청지기로서 보존하는 사명을 이뤄갈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자연환경의 소중함, 보존의 중요성을 새롭게 느껴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낮선 곳을 여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그 지도는 살아있어야 하며,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지도를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개척자로서 지도를 만들어가며 여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계는 새로운 지도를 만들며 여행해야 하는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갔고, 새로운 지도를 만들며 여행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어도 안 됩니다. 지도가 없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지도를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다녔지만 요단강 너머에 새로운 길로는 가보지 않았습니

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경험이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에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요단강 너머에 다가올 가나안 정복 시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새롭게 일어났습니

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이하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영적 체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시점이었습니

다. 요단강을 만난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는 봄인데, 봄은 그 지역으로 말하면 추수의 때요, 헬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내려와서 큰 강물을 이루어 범람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

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입니다. 그 강물 앞에 멈추어 섰을 때 그들은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백성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에서 당황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이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강이었습니

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전염병의 재난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

가보지 않은 길

여호수아 3:1~13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는 더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빠른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데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동시에 장애물이요 요단강이었습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길은 그들 스스로 정하고 걸어온 길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걸어온 걸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내가 길을 잘못 길을 들어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걸어온 길이라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장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가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3일 동안 기다리신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야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와 산을 떠나 3일 길을 나아갔는데 여호와와 언약궤가 쉼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민 10:33).

“2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구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

다’”(3~4절).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1차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말씀, 이미 주어진 약

속, 이미 우리가 순종하며 지켰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

다.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고, 배를 띄울 수도 없고, 어떤 장치를 통해 건너갈 수도 없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고 기대함이 있습니다. 지휘관들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앞서’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 “그 궤를 따라가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고 했고, 11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약궤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됨이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모세 시대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호수아 시대에도 함께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백성들과 동행하십니다. 출애굽을 함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모세에게 “당신이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라고 질문하면 아마도 “여호와께서 친히 네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히 앞서 가시며 함께하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가시며 함께하십니다. 언약궤와 구름기둥을 통하여 앞서 임재하시고 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셨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미래의 지도가 되어 주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심으로 미래의 지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보지 않은 길로 가라”고 명령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

히 앞서 가시며 인도하십니다. 백성들에게는 당황스럽고 생소하고 낯선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오랫동안 주목하셨습니다. 그 땅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셨고, 그 땅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 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로 인하여 두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 미래의 지도가 되시고, 친히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리에서 앞서 가십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면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구빗쯤 되게 하고”라고 하셨습니다. 2천 구빗은 약 900m 정도 됩니다.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새로운 미래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있다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그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구약 전체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유대 절기는 일몰부터 다음 일몰까지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월절 하루입니다. 모든 절기는 일몰부터 다음 일몰까지입니다. 그것이 하루입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쉬고 잠 잘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둘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14면에 계속)

공감소비운동 그 아름다운 현장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삼동소년촌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마포구 농수산물 시장에 위치한 한 과일가게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네 사람이 들어간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장 김동환 집사와 그의 아내 이혜승 집사, 이익식 집사(1순 순장), 김정훈 집사(3순 순장)다. 과일가게 사장님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은 이곳 방문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 과일가게 사장님도 그들을 무척이나 반겼다. 이 아름다운 광경은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이하 베드로다락방)이 삼동소년촌에 전달할 과일을 구입하는 장면이다.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은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마포구에 있는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 삼동소년촌에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다. 과일 하나를 살 때도 어디에서 과일을 가져오는지, 과일 상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살피고 또 확인했다. 사장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그 과일가게도 발품을 팔면서 알게 된 좋은 가게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과일과 생필품을 구입한 베드로다락방 성도들이 발걸음을 삼동소년촌으로 옮겼다.

삼동소년촌은 베드로다락방이 ‘1다락방 1사역’으로 4년째 섬기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그 이름처럼 갓난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60여 명의 남자 아이들이 모여 살고 있다.

베드로다락방은 매주 삼동소년촌을 찾아

가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사역을 중단해야 했다.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삼동소년촌 아이들의 모습이 매일 같이 눈앞에서 아른거릴 정도로 보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런데 공감소비운동이 그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을 씻어줄 기회가 되었다.

베드로다락방 지체들이 정말 오랜만에 삼동소년촌을 찾았다. 베드로다락방 지체들이 도착하자마자 삼동소년촌 원장부터 사회복지사들까지 모두 로비에 나와 반갑게 맞아줬다.

삼동소년촌에서 베드로다락방 지체들을 더 기다리고 더 반가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삼동소년촌을 찾는 발걸음도, 도움의 손길도 모두 끊겼기 때문이다. 삼동소년촌 현재우 원장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삼동소년촌이 완전히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끊기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삼동소년촌이 섬 아닌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삼동소년촌은 코로나19 이후 후원 80%가



베드로다락방 성도들이 삼동소년촌에 선물할 과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고 있다.

끊겼다. 4개월 넘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 아이들을 간신히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삼동소년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다. 삼동소년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남들과 다르지 않게 스스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꼭 필요하다.

현재우 원장이 베드로다락방 지체들과 온누리교회에 감사인사를 건넸다.

“삼동소년촌 아이들을 위해서 늘 찾아와 주시고, 필요한 용품과 간식들을 챙겨주셔

서 정말 감사합니다. 베드로다락방 성도님들을 보는 순간 삼동소년촌의 안개가 완전히 걷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삼동소년촌 아이들이 생각나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한 번 방문해주십시오. 특히 음악이나 미술 등 예체능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변함없는 사랑을 삼동소년촌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문의: 02-372-7534

김포공동체-김포강화밀알선교단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

김포공동체 소망다락방 공감소비운동의 주인공은 김포강화밀알선교단이다. 지난달 23일 김포공동체 소망다락방은 김포강화밀알선교단을 찾아가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생필품박스를 전달했다.

김포공동체 소망다락방은 1다락방1사역으로 김포강화밀알선교단을 섬기고 있다. 김포강화밀알선교단은 김포·강화 일대의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시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개월이 넘도록 장애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서철석 단장과 간사들이 하루빨리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장애인들이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하나까 더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종종 장애인들이 저희 기관에 전화해서 “빨리 모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의 보호자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 자녀들을 돌봐주는데 요즘에는 보호자들이 장애인들 곁에서 하루 종일 짝팔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김포공동체 소망다락방 지체들은 5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라면, 과자, 세제, 휴지 등 간식과 꼭 필요한 생필품 10여 가지를 구입해서 ‘코로나19 응원박스’를 만들어 김포

강화밀알선교단이 섬기고 있는 18가정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응원박스를 받으신 한 어르신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며 5만 원을 현금하기도 했다.

김포강화밀알선교단 서철석 단장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장애인 자녀는 교회에 보내도 본인들은 교회에 안 다니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꾸준히 신경써주고 작은 선물을 보내주면 정말로 고마워하시고,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자녀의 장애를 본인의 죄라고 여기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밀알선교단은 1979년부터 장애인들을 섬겨오고 있다. 밀알선교단이 장애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 이상원 집사(71세)는 자녀 이원섭 형제(41세)가 네 살 때부터 밀알선교단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밀알선교단에서 운영하는 조기교실을 다녔는데 국공립특수학교보다 높은 질



김포공동체 소망다락방은 김포강화밀알선교단과 지역 장애인 가정에 공감소비운동을 펼쳤다.

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원섭 형제는 밀알꿈씨에서 직업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밀알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큰돈은 아니지만 장애인 자녀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셈을 조금 어려워하지만 비장애인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원섭이에게 김포강화밀알선교단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지만 매주 목요일

김포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정기모임에서도 장애인과 교제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을 기독교 정신으로 섬기며, 장애인을 교회와 사회에 바로 알리는 게 사역의 주요 목적이자 목표다. 자원봉사와 정기후원으로 김포강화밀알선교단과 함께할 수 있다.

문의: 010-3202-1292

후원계좌: 농협 256-01-029331

공감소비운동 그 아름다운 현장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용산역 노숙인 예배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비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용산역 계단에서 매주 노숙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순천 목사(서부이촌동 은혜교회)의 간절한 바람이다. 전 목사는 노숙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용산역 계단으로 향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노숙인들이 용산역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일자리가 생겼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립할 힘이 생겼거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노숙인들은 더 이상 용산역 계단을 찾지 않는다. 전 목사는 그만큼 간절하게 용산역 계단에 모이는 노숙인들이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도 전 목사와 노숙인들이 용산역 계단에서 예배를 드렸다. 30여 명의 노숙인들이 모였다. 각자 자리를 잡고 모여 앉은 노숙인들은 맨 앞줄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전 목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전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화답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노숙인들이 각자 이런 저런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전 목사는 그들의 오랜 친구 같아 보였다. 노숙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

목사의 다정한 말투와 표정이 정말 매력적이었다.

전 목사는 12년째 용산역 계단에서 노숙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숙인들을 만나기 위해 매주 용산역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2년 동안 사역을 이어오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사역이 중단 위기까지 갔었다.

“노숙인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하고, 매주 천 원씩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노숙인 사역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낙심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누리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의 사역을 듣게 된 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에서 손을 내밀어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은 매월 노숙인들의 간식비를 보내주고, 부활절과 성탄절 등의 절기에 선물도 보내주고 있다. 이웃사랑팀은 이날도 직접 준비한 선물꾸러미를 들고 용산역 노숙인 예배에 참석했다. 노숙인들에게 꼭 필요한 면도기와 마스크, 먹거리 등이 가득 들어있었다. 박순길 장로(이웃사랑팀 대표장로)가 노숙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전 목사에게 감사 인사도 했다.

“누군가는 부끄러워서, 누군가는 게을러

용산역 계단에서 드리는 예배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이 용산역 노숙인들에게 사랑을 전달했다.

서, 누군가는 술에 취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데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꼭 필요한 사역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전순천 목사님과 은혜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큰 교회도 선뜻 나서서 돌보지 못하는 사역에 망설임 없이 뛰어드시는 목사님과 교회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전순천 목사도 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에 감사를 전하며 간절한 부탁을 덧붙였다.

“필요할 때마다 큰 도움을 주시는 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에 큰 감사를 전합니다.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숙인들이 자립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숙인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인도로 섬겨주실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문의: 010-8949-4019(박승식 팀장)
010-9802-2395(이철원 총무)

서빙고 다문화사역팀-양주진리교회

“언니 링빈(Rong bin)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감소비운동을 위해 양주진리교회를 방문한 서빙고 다문화사역팀 최진선 집사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베트남에서 온 민항 자매가 점심에 나눠 먹은 미역냉채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서빙고 다문화사역팀은 양주진리교회와 꾸준히 교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월 1회씩 양주진리교회를 방문해서 이주민 자매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한국 요리비법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반년 가까이 교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주진리교회는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섬기는 교회다.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서빙고 다문화사역팀이 방문한 지난달 31일 양주진리교회에서는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은 베트남 이주민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에서 지원한 온누리상품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빙고 다문화사역팀은 양주진리교회 외에도 포천 하랑센터, 구로구 구로동 평강교회 등 총 58가정에 29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

권을 지원했다.

지난달 31일 양주진리교회에는 베트남에서 온 자매 20명이 참석했다. 목회자의 설교도 감동적이었지만, 베트남 이주민들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에 더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항 자매도 수입이 크게 줄었다.

“저는 사료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수익이 70% 가까이 줄어서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저와 자녀까지 네 식구가 생활하기도 빠듯하거든요. 오늘 온누리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못 샀던 생필품을 가득 사고 싶어요.”

이은희 자매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시작했다.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

“식 달 정도 일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지난 달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분유랑 기저귀 사고 돈이 남으면 고기랑 생선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온누리상품권은 이주민 자매 1인당 5만원씩 제공했다. 그 온누리상품권으로 양주진리교회 인근 마트에서 다 같이 장을 봤는데 순식간에 카트가 가득찼다. 그동안 사지 못했던 과일, 과자, 채소, 육류에 아이들 과자가

“그 사랑에 힘입어...”



서빙고 다문화사역팀이 양주진리교회와 함께 베트남 이주민들에게 공감소비운동을 펼쳤다.

지 골고루 골랐다. 신이 나서 장을 보는 이주민들을 보면서 채하경 선교사(양주진리교회)가 이렇게 말했다.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이 이주민 선교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주민 한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3~4년씩 걸리는데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도움을 받은 이주민 가정은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입니다. 이주민들과 양주진리교회 성도들은 온누리교회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주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해낼 거예요.”

양주진리교회는 채하경 선교사와 고 신치용 목사가 개척한 다문화선교공동체다. 채하경 선교사 부부는 1996년 베트남으로 파송을 받아 선교활동을 했다. 채하경 선교사는 남편 신치용 목사가 불치병으로 소천한 뒤에도 혼자서 양주진리교회를 개척해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후원문의: 031-871-3390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온라인 아웃리치

지난달 30일(토)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열기가 가득했던 곳이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본당이다. 이날 남양주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두 증인의 부활’을 주제로 부흥집회가 막 올랐다. 부흥집회 ‘두 증인의 부활’은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해 있다. 9년 전 중동과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세워진 해외비전교회다. 올해 6월 창립 9주년을 맞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아웃리치를 가서 부흥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잠잠해지지만을 기대했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날이 갈수록 증가했고, 현재는 모든 공적 모임이 중단된 상황 에까지 이르렀다. 예배당 역시 문을 닫아야만 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담당 김태완 목사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온라인 아웃리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을 맞아 온라인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온라인 아웃리치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부흥집회 ‘두 증인의 부활’ 영상을 찍어 보내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온라인 부흥집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록 직접 만날 수 없고,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부흥집회 열기는 정말 뜨거웠다. 성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발에 말씀을 새겨 넣었다. 쏟아지는 눈물로 얼굴과 옷자락을 적시는 기도시간이 백미였다. 성령의 열기가 가득 찬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부흥집회 실황은 구석구석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

란히 담겼다. 비록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한 곳에 모이는 듯했다.

김동희 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는 감사와 사랑,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아웃리치에 참가했다.

“같은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인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해영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온라인 아웃리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만남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마음이 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일챔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성도들 틈 사이로 눈에 띄는 이들이 있다. 커다란 첼로 케이스를 등에 메고 다정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어느 부부다. 그 주인공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챔버로 섬기고 있는 박무일, 박선영 집사다.

박 집사 부부는 토요일예배 1부와 일요일예배 2부에서 챔버팀으로 사역하고 있다. 매주 주일예배에서 부부가 나란히 앉아 첼로를 연주한다. 그들 부부의 섬김은 벌써 7년이나 이어졌다. 남편 박무일 집사는 1995년부터 주일 4부 예배 챔버지휘도 섬겼으니 그 시간이 더 오래됐다. 박 집사 부부에게는 섬김 그 자체가 무엇보다 큰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양은 우리 부부의 평생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희 부부에게는 무엇보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 같은 시간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잠시 멈춰야 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졌기 때문이다. 박 집사 부부를 포



박무일, 박선영 집사 부부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일 챔버를 섬기고 있다.

함한 챔버팀도 교회에 나올 수 없었다. 박 집사 부부는 예배당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길었다. 하루하루가 천년 같았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두 달 여 동안의 긴 시간이 지나고 고난주간부터 다시 모이게 됐다. 박선영 집사는 다시 예배당에 모이던 그날을 지금

도 잊을 수 없다.

“예배당 예배가 서서히 재개되면서 고난주간부터 챔버팀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소수의 인원이

지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하는 연주는 이전과는 다른 기분이 들었다. 박 집사 부부는 매일 하던 연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러면서 더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토요일예배에서도 일요일예배와 마찬가지로 챔버로 섬기기로 했다. 박 집사 부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쁘고 풍성하게 드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예배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이 없어졌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 예배의 자리에 하루라도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했기 때문이다. 박무일 집사는 섬김이 늘어나면서 기쁨과 감사도 두 배 늘었다고 고백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날이 두 배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말씀도 두 번 듣고, 섬김도 두 번 하니가 제 마음발에 더 좋은 것을 확실하게 심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생겼습니다.”

섬김도 두 배, 기쁨과 감사도 두 배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교토 온누리교회

고통은 있지만 감사는 더욱 넘치는 시간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교토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영환 목사입니다.

일본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긴급사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해결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많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순응하고 있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토 온누리교회는 지난 4월 부활절부터 두 달째 영상 생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한 것은 새로운 예배방식에 대한 목사인 저의 기대와 지식,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영상 예배에 앞서 예배당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매주 두 번씩 예배당 전체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제로 거의 모든 기구와 집기들을 꼼꼼하게 소독하면서 마치 우리 영혼에 끼어있는 더러운 영적 바이러스까지 씻어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배당 입구를 소독하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화개와 거룩에 관한 말씀을 지난 두 달 동안 계속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마스크나 소독제를 구할 수 없어



교토 온누리교회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서 겨우 수소문하고 발품을 팔아 새벽이전 밤중이건 차를 타고 가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화학용 소독제는 사용방법을 잘 모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성도 중에서 교토대학 대학원에서 화학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일본인 청년에게 취급방법을 배우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전공자보다 제가 방역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성도들이 온누리교회가 교토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고통은 있지만, 감사는 더

욱 넘치는 시간들입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가 기적같이 임신을 하게 된 일, 함께 사역하던 자매 선교사가 6월에 결혼을 하게 된 일, 교토의 여러 중심 교회 목사님들을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 등이 감사합니다. 특히 교토 온누리교회가 예배를 중시하는 일에 앞장서면 일본 선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엄하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이해해주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주일예배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명의 삶〉과 마스크 등을 택배로 직접 가져가서 전달하며 근황과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 성도(스리랑카인, 멕시코인, 태국인, 중국계 캐나다인)들도 찾아가 말씀과 생필품, 방역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교회로서의 사명, 앞으로 다함께 모여서 드릴 예배공동체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와 지원으로 교토 온누리교회는 일본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지난번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교토 온누리교회를 비롯해서 일본 비전교회들에게 보내주신 영상편지가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혼자서 아픔을, 함께 할 든든한 아군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방법과 대책이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선한 주님의 다스리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과 백성들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일본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자, 중보자, 선교사, 그리고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권영환 목사(교토 온누리교회)

Pole2공동체 릴레이 기도

오늘도 이 자리를 감사하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만난 지체들과 나는 이 한 마디로 지난 두 달 동안 기다렸던 예배가 재개되었음을 실감했다. 2월 말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자 결국 예배당이 폐쇄되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코로나19 상황이 결국 내 삶에서 예배의 자리까지 빼앗아간 것이 너무 억울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잠깐이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에는 불편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하게 느껴졌다.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시간을 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나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와는 점점 멀어졌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다는 찬양과 백은 그저 흥얼거림에 그쳐버렸다. 영상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다.

영상 예배가 지속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흔들리다가는 다시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어도 회복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Pole2공동체 리더십들과 함께 릴레이 기도를



예배당에 모인 Pole2공동체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제안했다. 정한호 목사님께서 릴레이 기도와 말씀통독으로 방향을 잡아주셨고, 리더십들은 공동체 지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도했다.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두고 매일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었다.

“이번 주부터 예배당 예배가 재개됩니다.”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다시 예배드리러 교회에 갈 수 있다는 말에 매우 기대가 되었다. 예배당을 밟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이제는 무덤덤해졌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 느껴졌다. 정작 가까이해야 했던 것들과 거리를 두었고, 멀리 해야 하는 것에 마음을 더욱 쏟았던 내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나의 마음을 더 쏟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나는 아직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 대표MC로서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의 바코드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지체들을 위해서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하고, 때로는 예배 중간 여러 가지 확인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자리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기에 오늘도 이 자리를 감사하면서 섬기고 있다. 사역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역이 우선되어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시 시작된 예배당 예배는 이제 6주차에 접어들었다. 아직도 예배당 출입 절차가 어색하고, 확인할 것들이 많지만 다시 모이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윤수현 자매(Pole2공동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3세계에서는

NGO 더멋진세상 대표이사 김광동 장로에게 듣다

“지구촌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때”

6월 13, 14일 NGO 더멋진세상 비전헌금 및 정기후원 약정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충격이 엄청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충격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은 그 고통과 아픔이 더 크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공포와 고통은 방역이나 진단검사가 제대로 실시될 수 없는 의료후진국일수록 크고 깊다.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들을 최전선에서 돕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은 그 끔찍한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그대로 목격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에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3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구촌 이웃들을 돕기 위해 NGO 더멋진세상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NGO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다음은 김광동 장로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대표이사 김광동 장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3세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NGO 더멋진세상은 지구촌 최빈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마을과 주민들을 주로 돕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 여파가 매우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굶주림과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것보다 굶주림이 더 무섭다고 할 정도입니다. 스리랑카 타밀족 공동체 아길 마을 주민들은 대대로 차밭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봉쇄령과 이동제한령이 내려지면서 실직하고, 하루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틀에 한 끼를 겨우 먹는 가정도 상당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북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수단 난민들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지원되던 NGO 더멋진세상의 급식도 휴교조치로 중단된 상태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몽골은 그나마 초기 방역과 봉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입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위, 몽골, 몰도바, 스리랑카의 일부 사역지에서는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 사역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식량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과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당분간 연기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몽골, 말리위, 스리랑카를 제외한 국가에서 본래 진행되던 KOICA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역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역은 국내에서 화상과 모바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르완다에서 진행 중인 농업프로젝트가 한창입니다.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 특용작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프로젝트가 중단되면 큰 위기가 생깁니다. 현지에서 근무하던 농업프로젝트팀은 귀국했지만 화상과 모바일로 현지사역자 및 지역책임자와 소통하면서 농업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는 긴급구호를 중점으로 사역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식료품과 방역용품을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코이카(KOICA)에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르완다, 네팔 등을 지원하는 긴급구호사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인도적 사업을 위한 특별예산이 편성되면 더멋진세상의 긴급구호사업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중심이 되어 실시 중인 긴급구호사업의 현황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NGO 더멋진세상은 현재까지 자체자금 15만불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6개국, 아시아 5개국, 중남미 2개국에 식량 및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사역자들이 귀국하고 현지에 남아있는 사역자와 선교사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걱정이었었는데 다행히 마을 주민들과 현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긴급구호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선교사님이 온라인으로 HIV 감염 어린이들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을 지휘하고, 현지인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르완다에서도 지역 교회와 협력해서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적대적이었거나 비우호적이었던 지역에서 NGO 더멋진세상의 긴급구호가 진행되면서 주민과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무슬림 지역에서도 방역품과 생필품을 받으려고 먼저 교회를 찾아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주민들을 섬긴다면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에게 지역이동을 허용해줘서 현지인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에 역병이 퍼졌을 때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또 하나의 선교적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지금, NGO 더멋진세상이 선교지 주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불가능 하리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선교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NGO 더멋진세상 사역의 변화나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그동안 NGO 더멋진세상은 말 그대로 NGO 단체이기 때문에 교육, 보건, 소득증대 등의 사역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NGO 더멋진세상은 현지인 양육과 현지 교회 및 교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NGO 더멋진세상은 부모교육, 농업교육, 마을 지도자 모임 등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성품과 품성을 지구촌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현지 스테프들에게 QT나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하고 있는 지부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적극적인 양육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가혼도 마을에서 현지 목회자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버지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르완다 장로교단 총회장이 아버지학교에 참여했다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며 르완다 전 지역에서 아버지학교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세계에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일대일 제자양육 같은 온누리교회의 핵심 양육 프로그램들을 적극 도입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자’는 비전에서 시작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구촌에서 가장 열악한 26개국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은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선교지에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나눔은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오는 6월 13, 14일 봉헌하는 6월 비전헌금과 정기후원약정에 적극 동참해주시십시오.”



책 읽어주는 목사

4차 산업혁명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변화시키는 인공지능
다쿠치 카즈히로, 모리시마 료코 저
| 영진닷컴 | 15,000원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의견은 디지털 시대가 급속도로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비대면 사회가 되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어 생활전반을 컴퓨터 앞에서 하게 될 것이라 한다. 맞는 말이다.

세상은 점차 디지털화 되어 왔고, 코로나 이후에는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다. 디지털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필수가 된다. 수많은 정보와 복잡한 네트워크를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고 해결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인간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AI시대에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실행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일들이 생겨나겠지만, 사회적 부작용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없어지게 된다. 필자가 읽은 이 책은 AI 시대에 어떤 직종이 사라지고 어떤 직종이 각광을 받게 될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향후 AI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례로 미국 최고의 금융투자 회사인 골드만 삭스는 ‘워런’이라는 AI를 신입사원으로 맞이한 후에 600명이나 되는 트레이더들을 해고했다. 워런은 애널리스트 15명이 4주 동안 할 일을 단 5분 만에 처리하는 업무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인간은 회사 취업에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AI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에만 사람들이 몰려 극소수 엘리트 집단이 돈과 권력을 독점하는 ‘빅브라더’ 시대가 된다. 세상은 점점 더 효율을 추구하고 사람보다는 AI를 선호하게 되고 심지어는 중요한 결정까지도 AI에게 맡겨버려 애니메이션 영화 ‘WALL-E’의 상황이 현실화 될지 모

르겠다. 편리함과 효율만 추구하여 모든 것을 기계나 컴퓨터에게 맡겨 버리면 사람이 주인 의식을 잃고 인간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편리함만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적절한 직업을 갖고, 일과 성취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복인데 삶의 대부분을 로봇이 대체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무척 암울할 것이다.

2024년이 되면 AI가 전 인류의 능력을 넘게 되어 무한대로 진화하는 특이점(singularity)에 돌입한다고 한다. 특이점이란 구글(Google)사의 AI 책임자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예측한 시점인데, AI는 급속도로 발전한 슈퍼컴퓨터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수백 번 기계 학습을 통해 지식을 통달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기술로 무한대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성이 지성을 낳고, 그 지성은 더 발전된 지성을 낳는 과정들을 반복함으로 AI가 인간의 지성을 넘어 무한대의 지성을 갖게 되는 시작점이 2024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봄직한 기계문명에 의해 지배당하는 디스토피아(Distopia)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AI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해주고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주는 도구로 출발했다. 좋은 도구로서의 AI를 ‘약한 AI’ (한두 가지 목적달성을 위해 개발된 것)라 한다면 인

간의 뇌와 같이 총체적으로 사고하고 느끼는 ‘강한 AI’가 등장하며 사정이 바뀌게 되었다. 인간을 돕는 종이 아니라 주인을 견어차고 신의 위치로까지 등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벌써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AI를 신봉하고 인터넷으로 교체하는 ‘데이터교’가 생겨 수억 명의 신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속에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도 내 마음에 예수님만 계시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왔다. 그런데 편리함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가면을 쓴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고민 없이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통제 하에 철저히 자신의 기계 의존적 속성을 거부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허원희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의인은 영원한 안식으로,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감으로써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종말론’에 관한 질문을 들을 때가 있다. 종말론은 크게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종말론이 개인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우주적 종말론은 인류와 피조물 전체 미래에 관한 것이다. 질문은 ‘우주적 종말론’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적 종말론의 측면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자 한다.

우주적 종말론은 세 가지 차원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사건, 순서, 의미가 그것이다. 먼저 우주적 종말은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취다. 그 네 가지의 사건은 재림, 부활, 심판, 영원이다. 재림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끝날 인격적이고, 가시적으로 다

시 오시는 사건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이다(계 22: 12, 20). 부활은 인류의 부활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인류를 말하며,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종말의 부활이다.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활한 인류가 심판을 받는 사건이다. 이 심판을 통하여 의인은 영원한 안식으로,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며, 서로에게 다른 영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는 크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및 ‘무천년설’이 있다. 전천년설의 경우 재림, 의인의 부활, 유대적 천년왕국, 악인의 부활, 심판김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사건이 배열된다. 후천년설은 교회적 천년왕국, 재림, 의인과 악인의 부활,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사건이 배열되며, 무천년설은 역사적 천년왕국, 재림, 의인과 악

인의 부활,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사건이 배열된다. 이렇게 순서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20장 1-6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건들을 배열하는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째서 같은 말씀을 보고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 전천년설은 문자적 해석을 하고, 후천년설 및 무천년설은 상징적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천년설은 미래적 종말론을 강조하고, 후천년설 및 무천년설은 현재적 종말론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전천년설은 강조점이 앞날에 있게 되고, 후천년설 및 무천년설은 강조점이 오늘날에 있게 되는 것이다. 전천년설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의 지상통치가 강조되고, 후천년설 및 무천년설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전파가 강조된다. 이것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암울하고 비관적 시대에서는 전천년설이 지지를 받고 번영하고, 낙관적 시대에서는 후천년설 및 무천년설이 지지를 받으면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천

년설과 후천년설 및 무천년설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전천년설은 지나치게 미래 종말을 강조하다가 현실비관 및 도피에 빠지게 되고, 후천년설 및 무천년설은 지나치게 역사 진보를 강조하다가 현실 낙관 및 제도에 빠지게 된다. 실제 역사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곤 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종말론에 대한 약점을 잘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복음’의 종말론적 긴장을 잃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종말론 논쟁의 궁극적 의미라고 생각된다.



한화수 목사
(동작 공동체)



사회선교본부 이웃사랑팀이 용산역 노숙인 예배에 노숙인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공감소비운동’ 종료

사역보고서 6월 14일까지 제출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이 지난 달 31일(일) 종료됐다.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은 ‘부활의 50일을 전 통시장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 걸고 지역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했다.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에는 총 342개 다락방이 참가했다.

서빙고 한강공동체 믿음다락방은 동두천 임마누엘선교교회에 생필품과 전도용품을, 요셉공동체는 길벗교회에 노숙인 전도용품을, 사회선교본부는 프래밀리에 온누리상품권을,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은 삼동소년촌에 생필품과 간식거리를, 김포공동체 소망다락방은 김포강화밀알선교단에 코로나19 응

원박스를,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용산역 노숙인 예배에 노숙인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다락방장은 6월 14일까지 사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사회선교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선교본부는 공감소비운동 평가보고를 7월 초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0 사역장로회 총회 및 봄 수련회

온누리교회 사역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 29일 진새골 온누리교회에서 ‘2020 사역장로회 총회 및 봄 수련회’가 열렸다. 사역장로뿐만 아니라 협력장로, 명예장로들까지 참석해서 의미를 더했다.

회장 백승웅 장로(서초B공동체), 부회장 김선래 장로(가정사역공동체), 김종건 장로(분당B공동체), 총무 서진봉 장로(경기A공동체), 서기 전구영 장로(여의도공동체), 회계 홍종철 장로(남양주B공동체)가 신임 임원으로 선출됐다. 백승웅 장로는 “사역장로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눔장터 재할용품 모집

서빙고 온누리교회 나눔장터에서 여름 의류 및 재활용품을 모집한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잡화, 재활용 가능한 의류 등을 기부하면 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 1층에 있는 나눔장터에 직접 가져오거나 선교관 북측 출입구에 있는 기부함에 넣으면 된다.

문의: 02-3215-3648, 3434

선교지 코로나19 긴급구호 2차 수요조사 완료

38개국 69개 지역 선교단체 및 선교사 구호요청

선교지 코로나19 긴급구호 2차 수요조사가 완료됐다. 38개국 69개 지역 선교단체 및 선교사들이 쌀, 식용유, 설탕 등의 식료품, 비누, 손소독제, 마스크, 교회, 주택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차 선교지 코로나19 긴급구호사역에서는 최소 3만3천여 명의 선교지 주민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은 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선교지 코로나19 긴급구호사역 예산마련과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결정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08

후원계좌: 573-910018-31505

하나은행(입금시 생년월일 기재)

영상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지속

온누리교회 유튜브, CGNTV, 양재 현주차장

온누리교회가 예배당 예배와 더불어 영상 예배와 드라이브인 예배를 지속한다.

영상 예배는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참여할 수 있다.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4시, 3부 오후 6시(청년부), 일요일예배 1~7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 토요일 없음)가 진행된다. 차세대, 대학 청년부(홀리스타 포함), 외국어예배(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스페인어예배), 장애인예배(사랑부) 주일예배도 각 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

(88.5MHz)에 맞춰 설교를 듣는 드라이브인 예배는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주일 오전 8시, 오전 9시 30분에 드린다.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하려면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바코드를 미리 발급받고 예약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고, 예배당 250대 선착순 마감한다.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가급적 자동차 안에 머물면서 성도들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자동차 창문을 열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 진행을 위해 빠르게 출차해야 한다.

가스펠 프로젝트 시작됐다!

온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경공부

온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 하는 성경공부 ‘가스펠 프로젝트’가 6월 6일 토요주일예배부터 시작됐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동일한 주제(One Point)로 설교를 듣고, 두란노서원에서 출판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 위대한 복음> 교재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소그룹 나눔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다.

코로나19로 차세대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드러지면서 어려워진 신앙

양육과 소그룹 나눔을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입한 방안이다.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는 두란노서점이나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에서 연령에 따라(유치부, 초등학교 저·고학년, 중고등부, 청장년용) 구입하면 된다. 두란노서점에서는 교재를 10% 할인해서 판매한다. 교회에서는 차세대 교재(유치부, 초등학교 저·고학년, 중고등부)에 한해서 교재 구입 비용 50%를 추가 지원한다.

문의: 02-3215-3523



이임하는 손신국 목사(왼쪽)와 새로 취임하는 신동식 목사(오른쪽)에게 안수하며 축복하고 있다.

“요나단 스피릿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신동식 목사 평택 온누리교회 6대 담당목사 취임

신동식 목사가 평택 온누리교회 6대 담당목사로 취임했다. 지난 5월 31일 평택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신동식 목사가 취임하고, 손신국 목사가 이임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요나단 스피릿’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요나단은 희생하는 자리, 낮춰야 하는 자리에 자신을 내놓았다”며 “요

나단 스피릿을 가진 성도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며 축복했다. 손신국 목사는 이임사에서 “그동안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평택 온누리교회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했고, 신동식 목사는 취임사에서 “평택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요나단 스피릿으로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3일자(1598호) 시사저널 온라인판에 온누리선교재단(CGNTV 온누리선교재단 소속)이 공시서류 목록에 기부금 지출내역을 누락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온누리선교재단의 재정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보도를 한 시사저널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온누리선교재단의 입장입니다.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온누리선교재단 기부금 지출내역이 누락되었다는 기사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가이드스타에 온누리선교재단 기부금 지출내역이 자세하게 신고 및 보고되어 있습니다. 국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선교재단은 매년 성도들에게 재정규모와 집행내역을 제공하고, 별도 회계법인에서 연 1회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그 내용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선교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결산서류를 외부에 공시할 의무가 없지만, 후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해왔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선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까 우려됩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에 혼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선교재단 상임이사 장규환 장로

전문가 기고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인간관계의 황금률 ... 행복은 관계에 좌우



이장로 장로
(여의도공동체, 한국
리더십학교 교장,
고려대 명예교수)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그 행복을 돈에서, 권력에서, 혹은 성취에서 찾을까 해서 쉴 틈도 없이 일한다. 그렇게 일하면서 깨닫는 것은 행복은 관계에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나거나 동료 관계가 나빠지면 행복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좋은 대인관계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좋은 대인관계를 맺고, 이를 토대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까?

섬김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성경은 대인관계의 황금률로 섬김을 말씀하고 있다. 섬김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이 말씀은 보통 대인관계의 황금률로 알려져 있다. 영어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했으면 하는 것을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의미다. 대인관계의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섬기려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한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이다. 자기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면 타인도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섬김의 기본이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성경은 대인관계의 황금률로 섬김을 말씀하고 있다.

섬김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할까?

첫째,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들도 다른 점이 많은데 타인이 나와 다른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루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타인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최상의 수단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기를 원한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실

수를 하며, 크고 작은 허물이 있고, 양심에 의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용서받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으니 잘못된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기억해야 한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셨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35)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을 원한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사람은 성장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거나, 그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해외현장 학습 혹은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은 그들의 성장에 매우 유익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현장훈련을 시키셨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의 성장을 도왔다. 그리스도인은 가정, 교회, 일터 어디에서나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계별 욕구를 알면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필요가 채워질 때 기뻐한다. 매슬로(Maslow)는 5단계로 구성된 ‘욕구 단계설’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각 단계에 대한 충족감이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다음 단계의 욕구를 지향한다고 한다.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

생리적 욕구는 기본적인 의식주나 휴식과 관련된 욕구로 직장생활에서는 좋은 임금, 많은 휴식시간, 물리적 작업환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된 후에 안전의 욕구를 지향하게 된다고 한다.

안전의 욕구는 보다 안정적인 직장이나 작업환경 등이다. 예를 들면, 임시직보다는 정규직 고용형태를 선호하는 것이다.

사회적 욕구는 주위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원하는 욕구를 말한다.

존경 욕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리더로서 대접받기 원하는 욕구도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나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일에 흥미를 느껴 자신과 일을 동일시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자아실현 욕구의 예라 하겠다.

우리가 욕구 단계설을 이해하면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웃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욕구에 따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2~24).

■ 순예배 간담회 참가 후기



/ 최규운 순장(송파A공동체)

2주 동안 순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회, 믿음, 자녀 양육방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선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교회가 늘 같은 자리에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일상의 안일함을 깨우치게 되었다. 주일에 아이와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살펴보게 되었다.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한계를 돌아보기도 하였다. 순원들은 하향식 교회 운영이 아니라 성도로부터의 문제제기와 의견수렴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가 새롭고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시스템보다는 목양 중심의 교회 성장을 더욱 도와야 하며, 차세대 성장을 위한 공간 확보와 교사들의 섬김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회 리더십들이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에 대한 자나한 의무감이 들게 해서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그 해답의 실마리

모든 순원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했던 부분이 차세대에 대한 염려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경험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기쁨,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더 깊이 고민하게 된다. 결국 가정예배와 부모의 올바른 믿음생활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기뻐하고, 눈물 흘렸던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간담회는 우리의 믿음생활을 살피고, 무엇이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질문과 고찰들이 내 삶에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지, 오늘의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묻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눔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찾아 가길 바란다. 나무가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듯, 오늘의 회개와 고민이 차세대에게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 간증



/ 장선미 간사(NGO 더멋진세상)

NGO 더멋진세상은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 인도네시아도 올해 4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고, 더멋진세상이 2016년부터 섬기고 있는 람퐁족 집단 거주지 바뚜바닥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올해 이 마을에서 계획했던 여러 사업들을 멈추고, 4월 말부터는 전염병 상황에 맞는 사역으로 완전히 전환하여 주민들을 돕고 있다. 제일 먼저 가장 시급한 마스크를 지원하려 했는데, 온누리교회 한 성도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필터까지 끼울 수 있는 6천 장이 넘는 마스크를 준비할 수 있었고 주민 1명당 마스크 2개, 필터 10장씩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 손 씻는 비누와 코로나19 예방법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질병 예방에 힘쓰고, 인근 보건소와 조산소에 비접촉 체온계를 지원해서 보건환경개선에도 노력했다. 또 사정이 어려운 과부 및 홀아비 169가정에는 긴급 식량패키지(쌀, 식용유, 라면 등)를 1차 전달 완료하고, 5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주민 대상으로는 7월까지 식량, 우유, 영양제 등 필수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방역 물품뿐만 아니라 식량과 필수품까지 지원해 주니 너무나 고맙다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활짝 여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위기이자
기막힌 타이밍

더불어 람퐁주 메트로시의 가장 큰 규모의 지역 병원인 마르디와류요 병원의 의료 환경 정상화도 도왔다. 마르디와류요 병원은 종합 병원이지만 의사들이 비웃을 입고 진료할 정도로 코로나 대응 사정이 열악하였다. 그래서 마스크 1,400장, 방호복 400벌, 신속 진단키트 250개를 긴급히 지원했다. 병원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고, 외과 의사 닥터 파란은 “누가복음 21장의 과부의 두 렵돈과 같은 귀한 헌금으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더멋진세상은 앞으로도 마르디와류요 병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또 병원과 협력하여 바뚜바닥 마을을 비롯한 람퐁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도울 예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더멋진세상은 앞으로도 마르디와류요 병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또 병원과 협력하여 바뚜바닥 마을을 비롯한 람퐁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도울 예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 마리아행전 123 기도문자



/ 임정민 권사(회복사역자)

예수님 말고는
간증할 게 없는 인생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핸드폰을 확인한다. 정성스럽게 쓰인 ‘마리아행전 123 기도문자’가 도착했는지 보기 위해서다. 눈을 뜨자마자 기도문을 확인할 때면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물밀듯 밀려온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문자 왔어?”라며 나를 재촉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춘 어느 날부터 나는 기도문자를 나르는 여종이 되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 등장한 물 떠온 하인만 알았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도 체험하고 있다.

처음 기도문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할 때는 손이 다 떨릴 정도였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남편과 멀리 있는 딸 가정에게 기도문자를 전달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족과 떨어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생사의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제목도 함께 나누었다. 처음에는 별 반응 없어보이던 가족들이 이제는 기도문자를 기

다리고 있다. 기도문자를 보내달라고 재촉하기도 한다. 함께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삼상 3:10).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 니이다”(사 26:3).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시 62:1).

매일매일 내 삶을 불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욕심과 생각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열심히 훈련 중이다. 매일 아침 도착하는 마리아행전 123 기도문자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내 삶을 불드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보잘 것 없는 죄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 외에는 간증할 것이 하나 없는 인생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다.

■ 한 편의 시(詩)



/ 채현석 선교사(2000선교본부)

천지의 주재(主宰)이신 성삼위 하나님!
지난겨울 역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해 겨울 참으로 오졌다.
눈 덮인 첩첩산중 나 홀로 넘었다면
십중팔구 조난(遭難)으로 동사(凍死)했을 걸
강도 만난 사람으로 난 예수
그를 끌어안고 산을 넘으며
같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끝내 그를 뿌리칠 수 없어
숨이 턱에 차며 땀으로 범벅이 되며
내 동무가 되어줘! 살아만 있어줘!
눈 덮인 첩첩산중을 넘던
그 겨울 참으로 오졌어도
살아서 넘는 길은 그 길 뿐이었더라”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기다리며

그러나 이 봄의 역병 창궐에는
봄꽃 바다 일렁이는 물결을 얼어붙게 하고
전무후무(前無後無)
교회 예배당 예배를 일시에 폐쇄케 하는
저 처음부터 교만했던 영의
사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오만하게 누워 노래합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이 역병을 일으켜
소위 열방(列邦)의 복음 선교를
일거(一舉)에 멈추게 하노라”

천지의 주재께서는
“나는 천지에 기드온 300명을 다시 모으노라!
기도의 무명용사(無名勇士)가 되어
후방과 골방, 광야와 산골에서
가공할 기도의 포격을 준비하노라”

신앙에세이

장로칼럼

목사로서 첫 걸음

정성진 목사
(서빙고 차세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7년 만에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다. 돌고 돌아 온 나의 7년은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

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간사로 3년의 시간을 보내던 때가 생각난다. 그 시간 동안 나에게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 차세대 교역자들이 다음세대가 올바른 신앙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사역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비전을 떠올리게 됐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세대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간사로 섬김을 다하던 그 시간을 통해 다시금 교역자로 설 수 있는 회복의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차세대 간사로 사역하며 오만 PK자녀캠프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여름캠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 이후 아부다비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교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아웃리치를 통해 아부다비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아부다비에서의 생활과 사역을 안전하게 인도해주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담당 김태완 목사님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배울 수 있

었다. 아부다비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사랑의 회복을 경험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차세대 전임교역자로 불러주셨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다.

목회자로 처음 발을 내딛는 목사안수를 받으며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게 됐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이 말씀을 묵상하며 목사안수식 때 선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신 “목사라는 타이틀에 교만하지 마라”, “목사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목사가 되라”는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이제껏 이끌어주셨던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며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목회자로서의 출발선에 서니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다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제 정말 목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겸손함과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려 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하고 싶다.

진료실 코로나 단상(斷想)

이학일 장로
(서초B공동체)

오늘도 나의 직장인 병원에 아침 7시 조금 넘어 도착했다. 늘 하던 대로 큐티 묵상과 기도를 마치고 진료를 준비하던 중에 잠시 상념에 젖었다. 토요일예배 신설을 포함해서 예배당 예배가 재개된 지 몇 주가 지났다. 두 달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며 기가 막힌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생각이 난다.

그랬다! 코로나 전염병은 예배를 포함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했다.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 내 여러 사역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고 모두 그리 말하고 있다. 수긍하고 적응해야지 하면서도 낯설음과 불편함을 더하여 영적 침체의 빌미가 되지 않나 싶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의료팀의 CMN 사역과 2000 선교 사역도 중단 또는 축소되었다. 매달 의료 봉사로 섬겼던 M센터 등도 그렇고, 매년 2-3월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오던 해외 아웃리치도 취소되었다. 이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변해갈까 저어된다. 예수제자훈련을 하던 때를 제외하고는 한 해도 거른 적 없이 휴가를 대신하여 다녀온 아웃리치가 중단되니 허전한 마음이다. 그동안 가보지 못한 여름휴가를 떠나볼까도 했는데 아뿔싸 코로나로 이마저도 안 되겠다.

나의 조그마한 병원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내원 환자의 감소와 이에 따른 병원수입 감소가 그것이다. 고정 지출은 그대로이므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동료 의사들의 난감한 호소는 나 역시 마찬가지다.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검사나 처치를 기피하고, 어린이나 학생 환자들과 각종

호흡기질환 환자들도 줄어들었다. 증가한 것도 있다. 간호사들의 마스크 구입비가 그것이다. 더 불어 매식이나 배달음식을 중단하고 아내가 준비해 준 점심 도시락 지참 등의 일이 새로 생겨났다. 그나마 고혈압, 당뇨, 갑상선 등 만성질환자분들은 그대로 오고 계신다. 참!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성인예방접종과 영양수액제 처방이 늘었고, 진료비를 지역화폐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늘었다.

직장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자니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교회 재정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선교사님들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문다. 아제르 콘트라! 형편은 어려워졌지만 쓸 것을 줄이고, 오히려 현금과 섬김을 더 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분주했던 일상이 단순해진 지금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친밀한 시간을 보낼 기회이지 싶고, 가정과 가정예배가 나와 자녀들의 믿음과 영성을 체크하며, 약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마 15:19) 등의 죄들을 걸러내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것을 소망해 본다.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진료 중에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 어른들은 내 얼굴에 침방울을 튀기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생들은 배운 그대로 기침할 때 어른들과 달리 옷소매로 금방 얼굴을 가린다. 이처럼 코로나 시국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영성훈련의 기간이지 싶다.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다. ‘일하다’, ‘섬기다’의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 ‘아바드’하면 노동이 되지만, 같은 일상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아바드’하면 예배가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거룩이고, 예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해 본다. 이것이 나의 아웃리치다.

권사칼럼

하나님의 잔소리 ‘죵죵죵’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잠 좀 자라
공부 좀 해라
네 방 청소 좀 해라
제발,
게임 좀 그만해라
...

엄마 잔소리 속에
꼭 끼어드는
죵죵죵.
한상순의 시 <죵
죵죵>의 일부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다. 요즘은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가 잔소리 1위다. 잔소리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치지 않고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자녀를 고쳐

보려는 욕구로 나타나는 엄마의 내적불안 때문이다. 엄마의 불안감이 자녀에게 전염되고 증폭되어 관계를 악화시킨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잔소리 래퍼가 됐다고 한다.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있을 때 잠언을 읽다가 하나님도 잔소리를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좀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말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좀 새겨라”,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좀 지키라”, “너는 법사에 나를 좀 인정하라” 등이다.

물론 말씀에 ‘죵’이라는 부사는 없지만 맥락은 그렇다. 하나님의 잔소리는 듣기 싫지 않고 달콤하다. 우리의 잔소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잔소리인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 3:15-16).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다(신 6:6-7). 부모인 우리가 말씀을 먼저 새겨야 한다. 손에서 놓치지 않고, 집안 곳곳에 붙이고 노트에 기록하고 입에 달고 다니면 집안 분위기가 바뀐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빨리 좀 일어나라 학교 늦겠다”고 아침 기상 때마다 잔소리를 하며 실랑이를 많이 벌였다. 그런데 손주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사 61:1)는 말씀으로 깨웠다. 한 번에 일어나지 않으면 2절, 3절까지 선포하면 일어난다. 서로 마음도

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손주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니 기뻐다. 반복과 지속은 작은 기적을 낳는다. 그들도 말씀을 덩달아 암송했다.

엄마의 잔소리는 불안감이 전염된다. 그러나 나병환자를 만진 예수님은 나병에 전염되지도, 나병환자가 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병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잔소리에 내가 먼저 아멘으로 화답하면 내 자녀들에게도 전염된다.

만일 하나님이 잔소리가 아닌 큰소리 한 번만 내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잔소리 ‘죵죵죵’을 즐겨워하자!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복합적입니다. 다중적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이 해결되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장애물을 통해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요단강을 단지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만 앞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가나안을 정복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7절).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습니다. 광야 시대를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명령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수 4:14).

또 다른 목적은 요단강이 멈추어 서며 통과하는 기적을 통해 가나안 민족의 마음을 두렵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용기와 믿음 등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에게 웬지 모를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할 때 믿음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목적을 갖고 계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대표적입니다. 요셉은 성실했지만 그의 삶은 이해되지 않았 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지만 성실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직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지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창 45:7-8).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 먼 훗날 과거를 되돌아보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 하였고,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고난에 처하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에서 놀라운 일을

셋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본 적 없는 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 하실 것이다’”(5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늘 익숙한 발걸음, 가본 길, 나의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긴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새로운 명령이 나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새로운 명령이 없었고,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반복되고, 오래되면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익숙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길에서는 새로운 명령이 필요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서는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받는 기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불투명한 미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받는 기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는 오늘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와 장애물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앞서 발을 디딜 때 갈라졌습니다. 홍해와 정반대입니다. 홍해는 다 갈라놓고 걸어가게 하셨지만,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믿음의 참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홍해 때는 뒤에서 추적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무찔렀지만, 요단강을 통해서는 앞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죽은 믿음은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 새로운 명령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예전보다 더욱 깨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거센 물결 소리만 들립니다. 세상의 비참한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주님께서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만나게 하셨다. 도시봉쇄 전 어떤 한국 여행자가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갔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채워주셨다. 지금도 여전히 아끼며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도시봉쇄 이후 이곳에 남아 있는 여행자들과 외국인들을 구별해서 거리에 다니다가 발견되면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약간의 혼란을 겪었지만 역시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합법적인 거주자로 아파트에 머물며 음식을 사러 밖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은 식료품과 공산품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다.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는 줄을 한 두 시간 정도 서서 겨우 본인의 할당량을 구입할 수 있다. 영육이 강건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도 생필품 사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만, 가끔 밀려오는 허탈함에 먹는 일에 시간과 육체를 소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면 슬퍼지기도 한다. 버스나 택시도 이용할 수 없어서 사역지를 갈

수 없다. 마음이 아팠다.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그날 목상한 성경 구절을 메시지로 나누면서 교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 선교본부에서 긴급구호를 진행하자는 연락이 왔다.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통로가 생긴 것이다.

여기저기 연락해서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듣고 급히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물건 구입에 나섰다. 하지만 많은 물량을 구할 수 없었다. 몇몇 현지 교회 멤버들에게 동참을 요청하고 몇 날에 걸쳐 긴급구호를 준비했다. 가장 필요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마스크를 만드는 가정집을 찾기 시작했다. 한 가정을 찾았는데 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 이 마스크는 이웃과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설명했더니 연로하신 할머니가 “아멘”이라고 말하며 자기도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했다.

물건을 구입하는 일도 어려웠지만 더 난감한 일은 택시도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또한 주님이 예비하셨음을

주님의 예비하심과 감사

감사함으로 고백했다. 쇠만 붙어 있는 빈껍데기 차체에 엔진 넣고 의자 붙이고 손수 짜깁기한 차량을 구할 수 있었다.

감사와 기쁨을 안고 R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다. 항상 우리가 가면 목을 껴안고 이마에 입맞추며 축복하시던 노모께서 우리를 껴안을 수 없어서 슬퍼하셨다. 우리도 마음이 먹먹했다. 신명기 6장 4-5절을 함께 봉독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목사님께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셨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D목사님 지역을 방문했다. 교회당에 작은 의자 몇 개가 전부인 교회다. 성도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눈 다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고, 성품을 다하지 못했고, 힘을 다하지 못했고, 그저 환경을 우선으로 바라보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또 눈물바다가 되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이들이 많은 S도시를 방문했다. 이제는 껴안고 인사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좋아 굳이 껴안아야 한다면 성도들이 인사한다. 어떤 이는 자기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다른 이에게 주며 쓰라고 한다. 집에 있는 것까지 넘겨주는 않았지만 식용유와 빨래가루, 비누, 마스크, 샴푸, 약 등을 집집마다 나눠 주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도 마무리했다. 미리 준비한 과자를 나눠주며 동네 아이들과 행복한 짧은 만남도 가졌다. 우리가 언제 올 수 있는지를 묻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라고 말한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허락하실 내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기도한다. 긴급구호의 손길을 통해 사랑을 전달하고, 섬기게 하시고, 위로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린다. / 최진리, 차은혜 선교사(종남미 C국)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66

함께 읽으면 더 즐겁습니다
읽을수록 깊어집니다

99



6월 9일(화) 오전 11시 20분 첫방송



출연 김병삼 목사 김필원 아나운서

